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한국학석사학위논문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에 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research on early study aboard
between the South Korea and China**

2016 년 8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손택부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에 대한 비교연구

지도교수 은기수

이 논문을 한국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손택부

손택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7월

위 원 장 박태균

(인)

부 위 원 장 문현아

위 원 은기수

(인)

**A comparative research on early study aboard
between the South Korea and China**

Professor Eun, Ki-Soo

Submitting a Master's thesis of Korean Studies

May 2016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Studies Major

Sun Zepu


Confirming the master's thesis written by Sun Zepu

July 2016

Chair

Park, Tae- Gyun 

Vice Chair

Moon, Hyun-a 

Examiner

Eun, Ki-soo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 현상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 조기유학생수의 변화 그리고 이런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한국은 1997년부터 조기유학생수가 계속 증가하여 2006에 정상에 닿았으며 현재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고유한 교육제도, 교육시스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과대한 사교육비도 조기유학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요인중에 하나다. 이런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영어를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 그리고 외국학위를 선호하는 한국기업문화도 한국조기유학생수의 증가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국제학교의 증가와 외국학위를 가진자의 취업난으로 인해 조기유학은 더 이상 유행이 아니게 되었다. 반면에 중국의 조기유학생수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부상과 중국의 교육문제가 여전히 중국 조기유학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개방적인 유학정책과 외국 선진적 교육방식도 중국조기유학생의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push and pull 이론을 활용해서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생수의 변화의 원인을 연구틀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점으로 조기유학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어: 조기유학, 교육열, 교육제도

학번: 2014-24258

목 차

1. 서론 -----	1
1.1 문제제기 -----	1
1.2 연구의 목적 -----	4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의의 -----	5
3.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의 현황 -----	9
3.1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의 정의에 대한 비교 -----	9
3.2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 현황에 대한 비교 -----	11
4. 한국과 중국 조기유학현상의 증가원인의 비교 -----	23
4.1 한국조기유학생수의 증가원인 -----	23
4.2 중국조기유학생수의 증가원인 -----	37
4.3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생수의 증가원인에 대한 비교 -----	48
5. 한국의 조기유학생수 하락원인 -----	50
6. 결론 -----	60
참고문헌 -----	63
Abstract -----	75

1. 서론

1.1 문제제기

중국 개방정책 시행 초기에 ‘유학’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외국대학에서 석사를 하거나 박사과정을 듣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특히 국가를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파견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일반 사람들의 인식중에 공식적으로 출국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 가면 너무 비싸서 못 간다는 생각이 강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외국 선진적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보면 거의 사회적인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가 부상하여 가족소득수준이 높아지며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였다. 게다가 중국 유학학원이 많이 생겨서 유학에 대한 모든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아서 학부모들이 걱정 없이 자식들을 유학 보낸다. 최근 몇 년 간에 중국 대학교입학시험 경쟁률이 계속 증가하는 바람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다른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치열한 교육경쟁을 피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를 얻고자 하고 학부모들은 일찍 자식을 외국으로 보내는 결정을 하는 것이다.

중국 절강일보(浙江日报)에서 2015 년 7 월 21 일 “조기유학이 이해되나요?” 라는 뉴스가 실렸다. 중국 항주(杭州) ‘유학대군’ (유학생)중에 조

기유학생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¹ 북경만보(北京晚报)에서 2015 년 10 월 26 일 “중국유학생의 나이가 낮아지고...” 라는 뉴스가 있었다. 중국 학부모들은 아직 초·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유학전시회에 데려가서 문의를 한다고 했다.² 인민일보(人民日报)에서 2016 년 1 월 7 일 “유학열풍이 부는 시점에 중국의 미래 유학영역 발전방향이 어떠한가?” 라는 신문이 간행되었다. 이 신문의 내용에는 중국의 “초연소유학생(超低龄留学生)”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³ 귀양만보(贵阳晚报)에서 2016 년 3 월 16 일 “귀주(贵州)에서 조기유학현상이 나타났고 98 개의 외국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하러 왔다...” 라는 기사가 실렸다.⁴ 2016 년 4 월 1 일 신화망(新华网)에서는 “중국 미국유학의 조기유학추세” 라는 뉴스를 보도했다⁵... 중국은 이제 조기유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교육부는 ‘조기유학을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조기유학이 사회적인 토론할 만한 이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⁶

¹ 蒋敏华. 2015. 「留学低龄化, 看懂了吗」. 『절강일보(浙江日报)』. 7 월 21 일, 8:59.

² 张航. 2015. 「中国留学生越来越小, 家长怎样在当地给孩子请保姆」.
『북경만보(北京晚报)』. 10 월 26 일, 9:40.

³ 马海丽. 2016. 「留学潮背景下 未来中国留学领域发展趋势如何」.
『人民日报海外版』. 1 월 7 일 11:17.

⁴ 王芳. 2016. 「贵州出国留学学生现低龄化 98 所国外院校来筑招生」.
『귀주만보(贵阳晚报)』. 3 월 16 일 9:23.

⁵ 신화망(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 (검색일: 2016 년 4 월 1 일)

⁶ 中国教育部. 2013. 「低龄留学倾向须引起高度重视」. 『中国教育报』. 7 월 27 일.

한국도 조기유학 현상이 유행하였다. 교육열의 열풍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여 한때 국내 치열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이 많았다. 한국인의 인식속의 ‘교육출세론’은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다.⁷ 학부모들은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물론, 국내 사회적인 분위기가 외국학벌을 선호하기에 조기유학을 보내는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뉴스는 이런 소식을 많이 전하고 있다. “조기유학생 8년만에 1/3로 ‘뚝’...”⁸, “조기유학 붐 한풀 꺾였다... ‘대입 취업에 큰 도움 안돼’”⁹, “조기유학 다녀와도 ‘주류’ 못 된다...”¹⁰. 한국 조기유학은 더 이상 “유행”이 아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한국과 중국은 교육영역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공통적인 유교사상의 기원, 교육출세론의 반영,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이 있는데 이들은 비교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기유학 현상이 한국과 중국에서 어떤 비슷한 과정이 있을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⁷ 오옥환. 2000. 『한국사회의교육열: 기원과심화』. 서울: 서울과학사.

⁸ 정혜진. 2015. 「조기유학생 8년만에 1/3로 '뚝'」. 『서울경제』. 11월 17일 17:21:33.

⁹ 강봉진. 2015. 「조기유학 붐 한풀 꺾였다 "대입·취업에 큰 도움 안돼"」. 『매일경제』. 11월 17일 17:26:17.

¹⁰ 김소희. 2015. 「조기 유학 다녀와도 '주류' 못 된다 1/3로 급감한 유학생」. 『데일리한국』. 12월 2일 00:13:55.

1.2 연구의 목적

최근 조기유학 현상이 중국사회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국 사회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나타나는 ‘조기유학’과 중국에서 말하는 ‘조기유학’은 같은 말일까? 한국의 조기유학생수가 상승하는 과정과 중국의 현재 조기유학생수가 증가하는 과정은 비슷할까? 이런 과정을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한국과 중국은 같은 원인으로 조기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점도 있을까? 그리고 한국은 왜 이제 조기유학이 ‘유행’이 아닐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보려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의의

조기유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우선, 한준상과 Sharan Merriam 외가 지은 <조기유학 로드맵>에서 조기유학의 정의에 대해규정을 하였다. 조기유학은 ‘유학’ 중에 특별한 위치에 차지하기 때문에 그 ‘조기’도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중국 ‘조기유학’에 대한 정의는 方奔&何玲&刘秀英 &王鹏 (2013)의 <我国低龄留学生发展状况研究报告>와 <中国教育报 2013>중에 규정하였다. 한국의 조기유학 명칭과 달리 중국에서는 ‘저령유학(低龄留学)’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조기유학의 현황을 설명할 때 한국측에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과학기술부 그리고 여러가지 뉴스를 통해 한국 조기유학의 현황을 살펴 보았다. 한국이 조기유학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해, 그리고 주요 수출국이 어느 나라인지에 대한 자료들이 있다. 중국 자료는 주로 중국 교육부의 통계자료와 <中国留学发展报告 2013>, <中国留学发展报告 2015>중에 데이터를 참고하여 중국 조기유학생수의 증가하는 증거를 보여주었고, 陈西金燕 &刘诗萌&剧若翔 (2011)의 <中国大陆低龄留学的现状分析与自费留学评估体系的建立>에서도 중국 조기유학현상의 증가세를 설명하였다.

조기유학의 동기에 대한 분석은 여러가지 논문자료를 활용을 했다. 이민수(2011)의 <조기유학의 참여 경험분석> 및 강치호(2011)의 <영어조기유학에 대한 학부모의 전반적인 인식연구: 자녀를 영어조기유학 보낸 학

부모를 중심으로>는 주로 외국어를, 특히 영어를 배우려고 해서 조기유학을 선택한다 라는 조기유학의 중요한 선택원인에 대해 논의 하였다. 그리고 전옥경(2012)의 <영어능숙도, 한국에서의 학업성적 및 문화이해도가 조기유학생의 자아형성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는 데이터를 통해 조기유학이 성적에 대한 영향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민수와 홍석준 & 성정현(2009)의 <조기유학 대상지로 동남아시아를 선택하는 한국인 부모들의 동기 및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연구: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는 부모의 사회적인 위치를 변동하고자 해서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논의를 하였다. 이종각과 김기수(2003)의 <‘교육열’ 개념의 비교와 재정의>는 조기유학은 교육열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 조기유학의 외부환경으로 되어 버렸다고 나타냈다. 박의수(2009)의 <한국교육문제의 역사적 인식론적 탐구-교과지식의 특성과 교육방법을 중심으로>는 한국의 교육문제를 살펴보았고 한국의 교육제도가 사회적 높은 교육열의 기본원인 중의 하나라고 논의를 하였다. 그 원인으로 학부모들은 이런 경쟁이 심한 사회를 피하려고 해서 조기유학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기유학의 감소원인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이춘희와 장미정(2009)의 <조기유학 아동의 유학생생활 적응에 관한 인식분석: 캐나다 조기유학을 중심으로>는 한국 조기유학이 감소화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한다. 김은진과 김현우(2010)의 <사교육으로서 조기유학의 문제인식에 관한 소고>는 조기유학의 단점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자세히 보면, 서영아& 박정운& 전세경(2008)의 <학령기아동의 조기유학 경험유무와 부모-자녀관계 지각 차이에 관한연구> 및 최영숙(2005)의 <조기유학, 가족 그리고 기러기 아빠>는 조기유학과 가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유준

호와 홍은주(2012)의 <조기유학에 의한 분거가족의 부모역할 및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것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또한 김재훈(2013)의 <동남아시아에 조기유학 한 학생들의 귀국 경험>중에 조기유학생의 실패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송민경 & 윤철경 & 이현주 & 김고은(2011)의 <조기유학종료자의 대학 졸업 이후 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연구>는 조기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꼭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보장이 없다고 한다. 중국측 曲恒昌 (2012)의 <WTO 与我国的留学低龄化>는 중국이 많은 정책을 실행하며 조기유학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리고 周满生 (2013)의 <教育国际背景下我国低龄留学原因及利弊>는 조기유학의 원인을 분석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杨冀辉 (2007)의 <中国学生国外留学低龄化之社会学分析>는 중국조기유학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분석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丁群 & 游永彬 (2007)의 <浅析留学低龄化>와 张东阳 (2013)의 <浅析“留学低龄化”现象>는 조기유학을 볼 때 중국학자로서 어떤 방면을 보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한국에는 조기유학현상에 대한 연구들은 2006 년전에 많이 있었다. 하지만 2006 년이후 조기유학에 대한 연구가 감소하였다. 특히 종합적으로 시작부터 지금까지 조기유학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적다. 또한 그에 대한 원인분석도 많지 않았다. 한편 중국조기유학에 대한 연구들 중에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기유학의 변화를 설명한 연구들이 적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비교연구 중에 교육제도와 교육관념 같은 분야의 비교연구가 많은데 조기유학이 새로운 영역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중국 조기유학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원인 설명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데이터와 근거로 원인분석을 하는데 의미를 갖는다.

둘째, 한국의 조기유학에 대한 연구는 2006 년이후 많이 줄었다. 한국 조기유학의 변화에 대한 논의와 관련 자료도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의 조기유학의 변화를 보여주며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조기유학을 더 이해하는데 의미를 갖는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교육현상에는 많은 비슷한 점이 있다. 교육과정, 교육이념 등 방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는데 조기유학에 대한 흥미로운 비교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교육주제 비교연구 틀 안에서 새로운 시점을 찾는다는 점에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의 변화원인을 분석하고 조기유학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의미를 갖는다.

3.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의 현황

3.1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의 정의에 대한 비교

한국의 조기유학은 그 역사가 깊다. 세계화의 심화가 계속되면서 조기유학자의 수는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조기유학 이야말로 학부모가 아이의 좋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지속된 교육열의 한 지류이기도 하다. 이종각 교수의 논의대로 교육열에 대해 정의를 하면 교육열은 자녀의 더 좋은 사회적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더 좋은 학력을 갖게 하기 위해 교육을 지원하려는 학부모의 동기체제(열정)이다.¹¹ 조기유학은 그 교육열 현상 중에 나타난 새로운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조기유학을 정의한다면, 조기유학이란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나가 현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¹² 이 정의를 보면 두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나이로 구별되지 않고 학력단계로 조기유학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외국기관에서 6 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야 조기유학을 일으킬 수 있다. 단기(6 개월이내)언어연수는 조기유학이 아니다. 이렇게 출국하는 학생이 ‘조기유학생’이라고 부른다.

¹¹ 이종각·김기수. 2003. 「‘교육열’개념의 비교와 재정의」. 『교육학연구』. 41 권 3 호. pp.191-214.

¹² 김홍원. 2005.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중국의 조기유학에 대한 개념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그 중에는 미묘한 차이점도 있다. 우선, 중국에서 ‘조기유학’은 말 그대로 ‘조기(早期)’ 유학이 아니라 ‘저령(低齡)’ 유학이라고 한다. 그리고 ‘조기유학생’으로 부르지 않고 ‘소(小)유학생’과 ‘어린유학생’이라고 부른다.¹³이 명칭으로 봤을 때 중국은 조기유학생에 대한 판단기준이 학력단계로 규정하는 것보다 나이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학자들은 ‘소유학생’에 대한 정의가 주로 두가지가 있다. 첫째, 18 살미만 외국에서 초중학교, 언어학교와 언어 아카데미센터,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예비과정 및 사립학원 등을 다니는 학생을 소유학생이라고 한다. 둘째, 15 살미만 국내 9 학년(중학교 3 학년)이하의 유학생을 소유학생이라고한다.¹⁴중국은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질 좋은 교육자원의 부족함을 느꼈다. 또한 교육방식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 등이 중국의 조기유학을 빠르게 추진시켰다.¹⁵ 이제 중국에서도 소유학생 유학 붐이 될 시기가 도래하였다.

¹³ 周满生. 2013. 「教育国际化背景下我国低龄留学原因及利弊探析,教育部国家教育发展研究中心」. 『比较教育研究』 No.10 General No.285.

¹⁴ 中国青少年研究中心课题组. 2013. 「我国低龄留学生发展状况研究报告」. 『中国青年研究』.

¹⁵ 中国与全球化智库. 2015. 『中国留学发展报告』. 社会科学出版社.

3.2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 현황에 대한 비교

한국의 조기유학은 1997 년 IMF 위기이전에만 해도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유학은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외국으로 석사나 박사를 따기 위해 간 것이었다.¹⁶ 1997 년 1 천여 명에 불과하던 조기유학생수가 1998 년이후 증가세를 보였다.¹⁷ 2000 년이후 정부가 해외유학 전면 자유화를 하였다가 그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보여준 언론과 국민들의 반대소리가 커서 그해 9 월 중학교 졸업이상자로 그 대상을 제한하였다.¹⁸ 보통 2000 년이전에 조기유학을 간 학생이 일반적으로 대학을 가기 어려운 학생이었던 반면, 2000 년 이후 ‘도약성 유학’ 이라는 명칭이 나타났으며, 이는 성적이 좋은 학생이 외국 학교로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경향을 의미한다.¹⁹ 그 이후 한국 교육개발원의 자료를 따르면 2001 년도에는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이 7 천 944 명이었는데 2006 년도에는 2 만 9 천 511 명으로 약 4 배정도 증가했다. 이후 제 2 의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7 년도부터 조기유학의 숫자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2008 년에서 2009 년에는 급격한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2009 년에서 2010 년사이에 약간 회복되지만 그 이후 여전히 조기유학

¹⁶ 한준상·Sharan Merriam. 2004. 『조기유학로드맵』. 청아출판사.

¹⁷ 김광웅. 2006. 「조기유학: 얻는 것과 잃는 것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과제」. 한국인간발달학회학술심포지엄 1-10.

¹⁸ Cho, Myung-Duk. 2002. “The Causes of Increasing Young Korean Students Who Go Abroad to Study.” 현상과인식 26(4): 135-152.

¹⁹ 김정현·홍석준. 2013. 『그들은 왜 기러기가족을 선택했는가』. 한울아카데미.

의 열풍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들어 조기유학을 택한 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연합뉴스에서는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4 학년도(작년 3월~올해 2월)에 유학을 목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한 학생은 초 등학생 4천 455명, 중학생 3천 729명, 고등학생 2천 723명 등 총 1만 9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학년도 1만 2천 374명(초 5천 154명, 중 4천 377명, 고 2천 843명)에 비해 약 12% 줄어든 수치다.” 라는 보도가 나왔고, 올해 2006 년이후 처음으로 1 만명 밑으로 돌파할 것을 예상된다.²⁰ <표 1> 와 <그림 1>은 한국조기유학생수치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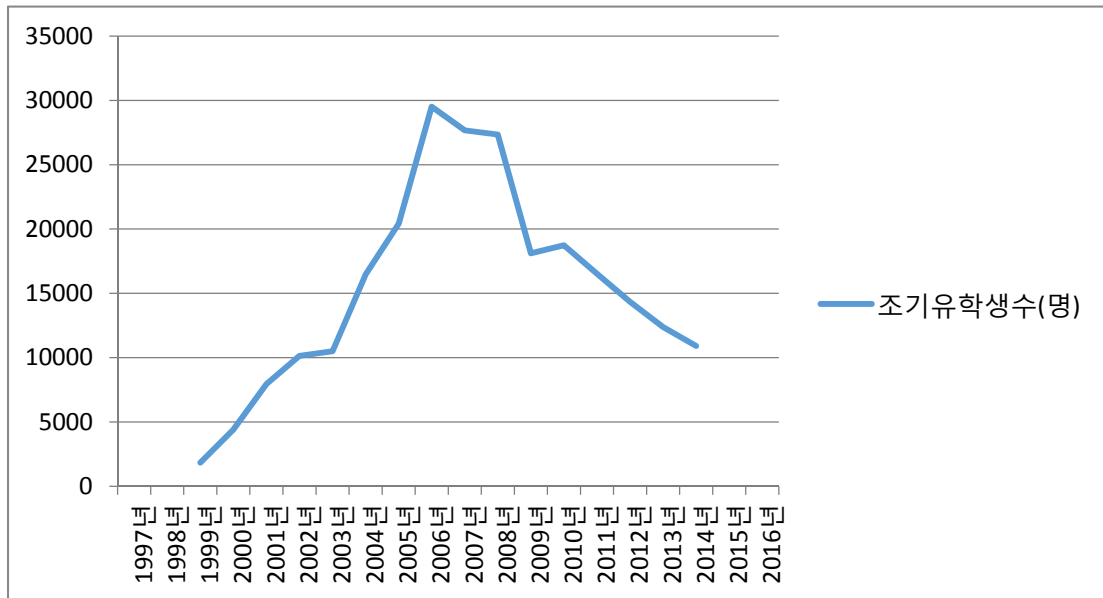
²⁰ 이재윤. 2015. 「‘한물간’조기유학...유학생 8 년만에 3 분의 1 로급감」. 『연합뉴스』. 11 월 17 일 06:15.

<표 1>. 한국조기유학생수치

	조기유학생수
1997 년	-
1998 년	-
1999 년	1839 명
2000 년	4397 명
2001 년	7944 명
2002 년	10132 명
2003 년	10498 명
2004 년	16446 명
2005 년	20400 명
2006 년	29511 명
2007 년	27668 명
2008 년	27349 명
2009 년	18118 명
2010 년	18741 명
2011 년	16515 명
2012 년	14340 명
2013 년	12374 명
2014 년	10907 명
2015 년	-
2016 년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그림 1>. 한국조기유학생수



중국의 경우, 중국 사립교육기관과 인터넷교육채널은 2010 년 12 월 3 일
에 유학의상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다. 3100 명이 넘는 학부모가 참가했고
86%의 학부모가 조기유학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²¹

중국은 20 세기 70 년대부터 유학생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1970 년, 전세
계에서 유학생수가 40 만 미달이었는데 1975 년이 되자 80 만명을 넘었고
1980 년에 110 만명에 달했다.²² 이렇게 국제 유학생수가 빠르게 성장한 것
을 길으로 보면 고등교육이 10 년 동안 국제화의 과정에서 발전하고 있

²¹ 陈西金燕·刘诗萌·剧若翔. 2011. 「中国大陆低龄留学的现状分析与自费留学评估体系的建立」.『世界教育信息』.

²² 中国与全球化智库. 2013. 『中国留学发展报告』. 社会科学出版社.

다.²³

<표 2>는 중국유학생수를 보여준다.

<표 2>. 중국유학생 수 (단위: 만명)

지표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유학생수	11.8515	13.4000	14.4000	17.9800	22.9300	28.4700	33.9700	39.9600	41.3900	45.9800

자료: 중국통계국(中国统计局).

<중국교육보(中国教育报)>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유학의 특징 중의 하나가 유학을 떠난 국가가 100 곳을 넘었지만 주로 다음 다섯 곳의 나라로 간다는 점이다. 이 다섯 나라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이다.²⁴ 이렇게 유학 붐이 심한 바람에 조기유학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²⁵ 2013 년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이 총 73019 명이며 중국학생이 32.3%를 차지하고 있고 영국은 총 25912 명이며 중국학

²³ OECD. 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306.

²⁴ 中国教育部. 2012. 「贡献大任务重挑战多」. 『中国教育报』. 7 월 6 일.

²⁵ 中国与全球化智库. 2013. 『中国留学发展报告』. 社会科学出版社.

생이 37.1%를 차지하고 있고 캐나다는 총 23757 명이며 중국학생이 31.2%를 차지하고 있고 호주는 총 16693 명이며 중국학생이 48.9%이다.²⁶ 2012 년에서 2013 년 사이에, 밴쿠버에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모두 1086 명의 국제 조기유학생 중에 중국인이 645 명이고 전부의 59.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²⁷

또 다른 데이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 2005 년에서 2006 년까지 중국은 65 명의 중학생이 개인비자로 미국에 있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2012 년에서 2013 년 사이에 미국 사립중학교에는 23,795 명의 중국 조기유학생이 있다. 7 년동안 365 배가 증가했다.²⁸

<표 3>은 미국으로 유학 가는 중국고등학생수를 보여준다.

²⁶ Farrugia, C.A. 2014. "Charting New Pathways to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Secondary Students in United Stat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²⁷ 中新社.2012. 「中国小留学生已成加拿大教育部门重要财源」. 『中新网』. 9 월 5 일, 04:58.

²⁸ 中国与全球化智库. 2013. 『中国留学发展报告』. 社会科学出版社.

<표 3>. 중국고등학생 미국유학(단위: 명)

학년	2005-2006	2008-2009	2010-2011	2012-2013
중국고등학생수	65	4503	6725	23795

자료: 미국국토안전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미국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중국유학생이 23.5%를 증가했고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 50%가 증가했다.²⁹

<표 4>는 2003년에서 2013년까지 미국중학교 F-1비자를 가진 중국학생의 수량을 보여준다.

²⁹ 中国教育部. 2016. 「两会聚焦:教育改革也要供给侧发力-访全国政协常委、民进中央副主席朱永新」. 『中国教育报』.

<표 4>. 2003 년-2013 년미국중학교 F-1 비자를 가진 학생의 수량

학년	학생수
2003-2004	433
2004-2005	524
2005-2006	946
2006-2007	1862
2007-2008	3534
2008-2009	6098
2009-2010	9823
2010-2011	15548
2011-2012	21905
2012-2013	26919

자료: SEVIS.

또 하나의 자료를 보면 2003 년부터 2013 년 미국 중학교 F-1 비자를 가진 중국학생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³⁰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유럽도 역시 많아졌다.³¹

³⁰ Student and Exchange Vision Information System.

³¹ 丁艳丽. 2013. 「留学低龄化何以来势汹汹」. 『中国人才』.

호주에서 18 세 미만의 조기유학생 수 중에 중국유학생 수의 증가세를 볼 수 있다. 2012 년의 자료를 보면 중국조기유학생 수가 5083 명이고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다.³² 2014 년의 데이터를 보면 7199 명이 있다고 보도했다.³³ 불과 2 년만에 2 천명이 급증했다. 호주 주중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1995 년에서 1996 년 사이에 104 개의 중학생 비자를 발급했다고 하며 1998 년에서 1999 년 사이에 620 개에 달했으며 2002 년에서 2003 사이에 5299 개까지 올라갔다.³⁴

영국도 중국의 조기유학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2009 년-2010 년에 전 세계 4 세-17 세의 학생의 비자발급 수가 7018 개인데 중국학생이 1157 개가 있다. 2013 년-2014 년의 수치를 보면 2826 개까지 증가했다.

<표 5>는 영국 4 세에서 17 세까지 학생비자를 가진 학생의 수량을 보여준다.

³²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https://internationaleducation.gov.au/research/research-snapshots/pages/default.aspx>.

³³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http://internationaleducation.gov.au/research/research-snapshots/pages/default.aspx>.

³⁴ 丁群·游永彬. 2007. 「浅析留学低龄化」. 『南昌航空工业学院学报』第9卷第1期. 江西省教育厅国际合作中心.

<표 5>. 영국 4-17 세 학생비자 현황(단위: 명/%)

년도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전세계	7018	8550	10222	11043	12280
중국	1157	1709	2259	2377	2826
비율	16.49	19.99	22.10	21.52	23.01

자료: 영국 이민국 통계사이트.

중국과 달리 한국의 조기유학의 대상국가도 역시 달라졌다. 2005 년도 국가별 출국 현황을 따르면 미국으로 유학한 인원이 12,171 명이고 전부의 34.6% 차지하고 있으며 2008 년도의 인원이 13,156 명이고 32.1%으로 줄었다. 다른 면으로 보면 말레이시아 등 국가 대표로 동남아시아 국가로 유학한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으로 조기유학한 학생 수가 가장 많아서 이런 국가로 간 학생의 사례로 우리는 조기유학의 장점, 조기유학의 실태 그리고 조기유학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표 6>은 2005 년도 와 2008 년도에 한국 조기유학생이 국가별 출구현황을 보여준다.

<표 6>. 2005 년도와 2008 년도 국가별 출구 현황

구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05 년		2008 년	
미국	12,171	34.6%	13156	32.1%
일본	812	2.3%	852	2.1%
프랑스	176	0.5%	139	0.3%
독일	293	0.8%	261	0.6%
스페인	70	0.2%	61	0.2%
중국	6340	18.0%	5415	13.2%
캐나다	4426	12.6%	5172	12.6%
호주	1674	4.8%	2046	5.0%
뉴질랜드	1413	4.0%	1636	4.0%
러시아	159	0.5%	216	0.5%
영국	504	1.4%	535	1.3%
중동	170	0.5%	339	0.8%
동남아시아	4011	11.4%	7973	19.5%
남미	356	1.0%	387	0.9%
미확인	1478	4.2%	1265	3.1%
기타	1091	3.1%	1508	3.7%
계	35144	100%	40961	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6&2009)).

주)과경동행, 해외 이주포함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현상에는각 특징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두가지가 있다. 한국은 1997년 계속 조기유학생수가 증가되지만 2006년부터 하락세가 보인다. 그 반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조기유학생을 보내는 대상국이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영국이다. 이것과 다르게 한국은 미국과 캐나다를 많이 보냈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도 많이 보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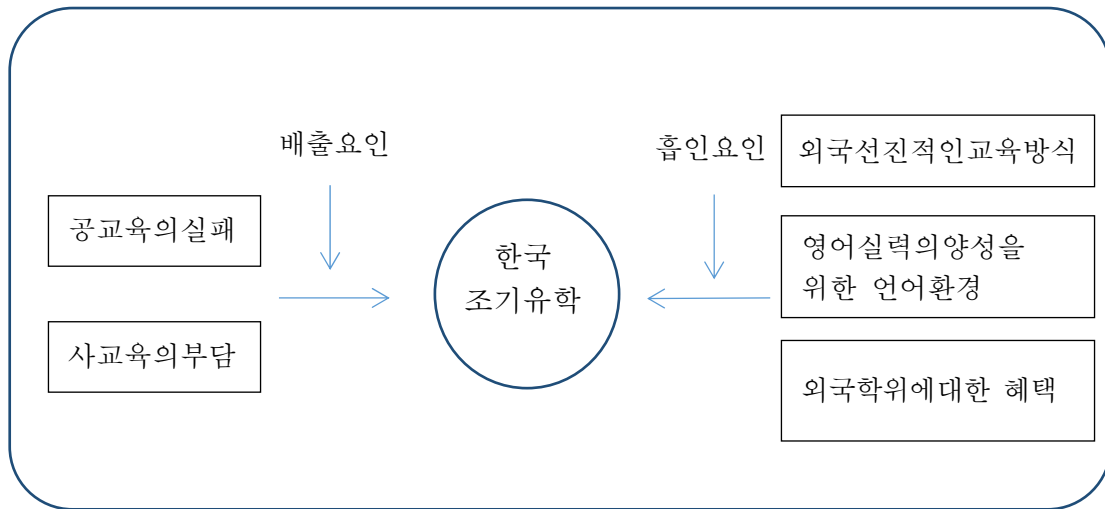
4.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현상의 증가원인의비교

4.1 한국조기유학생수의 증가원인

유학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많다. 1984년 Syrowy 와 Inkeles 의 연구에서 조기유학의 동기에 푸시앤풀이론(push and pull)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이론은 크게 흡인요인과 배출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기유학 동기의 흡인요인은 외국의 좋은 교육환경과 좋은 유학정책 등이 있고 배출요인으로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 경제적인 요인 등이 있다³⁵.

한국 조기유학생 수의 증가원인을 잘 설명하기 위해 분석틀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³⁵ Syrowy, L., and Inkeles, A. 1994. "Univercity-level student exchange: The US role in global perspective, In Foreign Student Flows: Their Significance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N.Y.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 조기유학은 주로 두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첫단계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열풍에 따라 조기유학의 황금시기였을 것이다. 조기유학생의 수, 그리고 조기유학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높다. 두번째 단계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가 전에 있던 것과 반하여 조기유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배출요인중의 하나가 공교육의 실패다. 한국의 공교육이 학부모 마음속에 어떤 위치에 있을까? 한국이 ‘공교육의 실패’라는 표현도 있고 심지어 ‘붕괴하는 공교육’ (disestablishing public education) 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공교육제도가 약화되고 있다.³⁶ 한국교육에서 공교육과 사

³⁶ 윤정일·정수현. 2003. 「한국공교육의진단」. 『아산재단연구총서』 제 141 집. 집문당.

교육이 구분되지 않아 교육에 대한 공공적 합의가 없고, 게다가 일일천리의 사회변화와 학생의 특성 및 학부모의 교육열 등 여러가지 요소로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공교육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입시위주 교육이다.³⁷ 안병철의 연구에서도 학생이 한국의 공교육과 입시제도가 싫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기 위해 보다 나은 교육을 받고 싶다고 했다.³⁸ 따라서 조기유학의 선택이 많아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럼 한국의 교육시스템 어떨까?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1945 년 해방 이후 형성되었다. 1948 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 년 12 월 31 일 교육법을 공포하였다. 이 교육법은 교육이념과 목적 그리고 학교의 종류와 수학연학을 규정하여 현재 한국 교육법의 기본이 되었다.³⁹ 미군정 시기에 한국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위원회가 성립되었고 기간학제로서는 단선형제도를 수립하여 미국의 학제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던 학제를 도입하였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6-3-3-4 제도를 들 수 있다. 즉, 6 년 소학교(초등학교), 3 년 중학교, 3 년 고등학교 그리고 4 년 대학교 과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 16 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제정하였고, 원래 의무 교육은 초등학교까지였지만, 1984 년부터 중학교로 연장되었다. 한국교육개

³⁷ 윤정일·정수현. 2003. 「한국공교육의진단」. 『아산재단연구총서』 제 141 집. 집문당.

³⁸ 안병철. 1996. 「조기유학의 현황과 과제: 북가주(Northern California)조기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후기사회학대회』 pp. 67-82.

³⁹ 피정만. 2011. 『한국교육사 이해』. 하우.

발원 ‘social indicators of South Korea’ 자료를 보면 1970년대 한국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상당히 낮았으며 2004년이 되어 고등학교 교육비가 면제된 이후로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다.⁴⁰ 법적으로 한국 고등학교는 네 종류인데,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문, 이과로 나눠 교육시키는 고등학교로 대학교 입학의 목적으로 한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직업 교육과 관계 없는 대안학교도 포함된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전문적인 직업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고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두어 정부에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학교다. 과학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에 포함된다. 보통 명문대를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편이다. 학부모들은 자식들을 특목고에 보내기 위해 사교육을 많이 시킨다. 대학의 경우 넓게 종합대학, 교육대학, 각종대학(사관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원), 원격대학, 전문대학이 있다. 일반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수시와 정시, 두가지가 있다. 수시는 정시 이전에 대학에서 자기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미리 뽑는 전형이다.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특기자 전형이 존재한다.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전형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⁴⁰ Chie Maekawa. 2009. “A comparative Study on Education Aspir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ternational Area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大學修學能力試驗, CSAT,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은 1994 학년도부터 대한민국의 대학 입학 평가에 도입된 시험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용어는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러한 교육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일단 한국에서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특목고에 가는 것이 유리한데, 특목고에 입학하는 데에도 많은 경쟁을 거쳐야하므로 조기 유학을 선택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살 경우 한국 대학의 외국인 전형에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수한 외국어 실력으로 대학 입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2011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특목고와 일반계 고교의 격차가 더 벌어져 일반계 고교 중상위권 학생비율이 2010 년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⁴¹ 학부모들은 자식이 특수고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애써 노력한다. 여기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됨으로써 교육에 대한 불평등도 심해지고 있다. 상위층에 있는 학부모들은 중하위층에 있는 학부모보다 더 높은 사교육비를 사용해서 사교육의 혜택으로 많은 부유층자녀가 더 쉽게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다.

<표 7>는 상위층과 하위층 학생집단의 점수차이를 보여준다.

⁴¹ 남인숙. 2011. 「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격차」. 『현상과 인식』 특권 2011.9. pp.15-38.

<표 7>. 학생집단과 점수차

학생 집단	수학점수차	과학점수차
상위 5%	+14	+21
상위 10%	+9	+11
하위 10%	-15	-37
하위 5%	-12	-46

자료: 이광현(2006); 양정호(2006)⁴².

중하위계층에 차지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런 사회의 편견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이탈하고 싶은 생각이 자리잡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배출요인 중 또 하나가 사교육의 부담을 느껴서 외국으로 출국하고 싶다는 관점이 있다. 이순형과 권미경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유학을 결정하게 한다는 관점이 있다.⁴³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를 의하면 80%이상의 초등학생, 75%정도의 중등학교 학생, 그리고 절반 이상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과외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한다.⁴⁴ 학교별 사교육

⁴² 이광현. 2006. 「OECD PISA 학업성취도에서의 양극화심화」. 교육정책포럼.

양정호. 2006. 「교육양극화무엇이문제인가?」. 『교육개발』 33 권 1 호.

⁴³ 이순형·권미경. 2009. 「한국의조기유학」. 『한국아동학회아동학회지』 30 권 6 호. pp297-308.

⁴⁴ 최상근 외. 2003. 「사교육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CR 2003-19. 한국교육개발원.

참여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는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비율을 보여준다.

<표 8>.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 비율(단위: %)

	1980	1990	1997		1999	2000		2001	2003
학교 급별			한국교 육재정 경제학 회	한국교 육개발 원	교육인 적자원 부	한국 교육 개발 원	교육 인적 자원 부	한국 교육 개발 원	한국교 육개발 원
초등 학교	12.9	-	81.2	72.9	70.1	73.5	70.7	70.5	83.1
중 학교	20.3	31.0	55.3	56.0	62.8	50.7	59.5	63.9	75.3
고등 학교	26.2	26.2	27.2	32.0	47.2	39.8	35.6	48.3	56.4

자료: 『교육사회학연구』⁴⁵.

⁴⁵ 양정호. 200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형모형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 권 2 호. pp.121-145.

<표 9>는 학생이 1인당 기준의 사교육비 지출을 보여준다.

<표 9>. 학제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2003년)(단위: 만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사교육비 지출	23.8	21.0	27.6	29.9	18.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⁴⁶.

위의 표를 보면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암시하였다.⁴⁷ 한국사회에서 출신대학의 지명도와 ‘지위’가 대학졸업하고 나서 취직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인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고 있으므로 ‘일류대’에 대한 갈망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확실히 개인의 성적을 올려줄 거란 보장이 없으나 사람들은 사교육을 받고자 한다.⁴⁸ 이런 심리작용을 해서 학생들은 과한 공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런 현상을 벗어나고 싶어한다.

⁴⁶ 최상근 외. 2003. 「사교육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CR 2003-19. 한국교육개발원.

⁴⁷ 최형재. 2007. 「사교육의 대학 진학에 대한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⁴⁸ 최형재. 2007. 「사교육의 대학 진학에 대한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한편, 이성림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지출의 편차도 있다.⁴⁹

<표 10>과 <표 11>는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계의 비율을 보여준다.

<표 10>.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계의 비율- 초등학생 가계(단위: %)

년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0	74.8	39.80	69.39	61.86	71.43	79.38	78.57	89.80	84.54	83.67	89.69
1996	84.0	59.76	75.31	82.72	83.95	85.19	92.59	88.89	91.36	91.36	88.89
1998	81.3	54.39	74.68	70.18	85.71	85.96	82.46	89.29	85.96	89.47	96.43
2000	85.8	58.95	82.11	77.89	87.37	92.63	91.58	88.42	90.63	91.58	96.84

⁴⁹ 이성림. 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40 권 9 호. pp.143-159.

<표 11>.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계의 비율-중고등학생
가계(단위: %)

년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0	62.0	34.25	39.73	58.90	67.12	52.78	58.90	76.71	71.23	80.82	79.17
1996	64.0	44.68	48.15	55.56	58.02	60.49	72.84	67.90	80.25	77.78	77.78
1998	77.3	54.29	65.71	75.71	77.14	84.29	87.14	81.43	84.29	78.57	84.06
2000	70.7	48.11	59.05	62.26	70.48	72.64	70.48	83.02	81.90	81.13	78.13

자료: <대한가정학회지>⁵⁰.

위의 표를 보면 상위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중·하위층보다 많다는 것으로 보인다. 중·하위층에 있는 학부모들은 자식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싶은데 상위층보다 같은 몫의 사교육을 못 시켜서 불공평을 느껴 외국의 유학을 선택하기로 결정한다.⁵¹ 또한 김은진과 김현우는 사교육이 한국에서 교육환경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교육기회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지

⁵⁰ 이성립. 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40 권 9 호. pp.143-159.

⁵¹ 이민수. 2011. 「조기유학의 참여경험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만 사회계층에 따라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아직 사라지지 못하고 있다.⁵² 특히 사교육으로 구분된 교육기획의 불평등의 심화된 현상이 완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현상이 조기유학을 초래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⁵³

흡인 요인은 세가지가 있다. 첫째, 외국에서 선진적인 교육방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학부모들 마음속에 미국의 학교는 하고 싶은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워주는 학교라고 생각한다. 수업방식도 역시 토론식 교육과 살아 있는 교육방식이 있다. 즉,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관점을 하고 선생님에게 ‘NO’ 라고 말할 수 있다. 조기유학을 떠나고자 하는 학생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인정해 주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 환경에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⁵⁴

둘째, 한국사회가 영어를 중요시해서 영어실력을 양성하기 위해 조기유학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생각이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워 영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좀더 일찍 더 많이 공부시켜 다른

⁵² 신광영. 2004. 『한국의계급과불평등』. 을유문화사.

⁵³ 김은진·김현우. 2010. 「사교육으로서조기유학의문제인식에대한소고」. 『高鳳論集』 47 권. 경희대학교대학원.

⁵⁴ 고재용. 2006. 『미국유학 200% 해킹하기』. 한솜미디어.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해 해외에서 영어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한국사회가 영어를 중요시한다. ‘우리는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입사시험까지 영어 실력을 사회능력의 척도처럼 꽤 오랫동안 여겨왔다.’⁵⁵라는 것처럼 한국인의 마음속에서 영어는 이 사회에 나가는 발판이라고 볼 수 있다.

김홍원의 학부모들이 조기유학을 보내는 이유에 대한 연구결과 외국어 습득 이유가 가장 많이 높다고 나온다. 학부모중 22.9%가 외국어습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사가 26.3%이고 학생이 27.2%이다.⁵⁶ 조기유학을 선택한 나라를 보면 영어권 나라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국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영어를 매우 중요시한다. 정부가 많은 영어교육정책을 내놓았지만 학부모들은 아직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고 싶어한다.⁵⁷ 유학하고 나서 들어온 학생의 학업성적을 한국에서만 공부한 학생과 비교해보면 역시 차이가 난다. 영어와 밀접한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영어능력뿐만 아니라 사고방식도 국내 학생과는 다르다.⁵⁸ Giles & Johnson 와 Heller 는 언어는 사람의 생각, 감정과 밀접한

⁵⁵ 민병찬. 2016.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5월 3일, 08:55:01.

⁵⁶ 김홍원. 2005.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⁵⁷ 강치호. 2011. 「영어조기유학에 대한 학부모의 전반적인 인식 연구: 자녀를 영어 조기유학보낸 학부모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⁵⁸ 전옥경. 2012. 「영어능숙도, 한국에서의 학업성적 및 문화이해도가 조기유학생의 자아형성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영향」.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대학원.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고, 진경애와 한종임의 연구중에도 본국에 있는 공교육의 경우 매주 한정된 시간 안에 시험을 위한 영어공부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영어공부를 할 수 없다고 나타냈다.⁵⁹ 따라서 조기유학이 영어성적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생자신도 학부모도 외국에 가서 영어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 이민수의 조기유학의 참여자에 대한 분석에서도 조기유학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응답자가 만족할 만한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⁰

또한 흡인요인중에 다른 것이 외국학위에 대한 혜택이다. 한국사회는 학벌을 중요시하고 교육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한다. 전통적인 봉건위계구조를 붕괴시키기 위해 평등의식을 가득히 마음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신분을 바꾸려고 하고 ‘교육출세론’이 생기게 되었다.⁶¹ 현실을 말하자면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직장을 갖고 상류사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때문에 취업의 모든 좋은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 학력과 학벌을 중요시한다. 좋은 사회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일부학생만이 명문대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고학력을 갖지 못하고 한국사회가 과잉학력사회가 되어 버렸다.⁶² 세계화를 맞이면서 학부모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⁵⁹ 진경애·한종임. 2010.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공교육이 학생들의 정책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회지』 37 권 2 호.pp. 31-35.

⁶⁰ 이민수. 2011. 「조기유학의 참여경험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⁶¹ 오욱환. 2000. 『한국사회의교육열: 기원과심화』. 서울교육과학사.

⁶² 오욱환. 2008. 『조기유학, 유토피아를 향한 출구: 조기유학의 복합적기능과 역기능』. 교육과학사.

되고 외국학력에 대한 우대를 인식되어서 자식을 외국으로 보내기 시작한 다.⁶³<연합뉴스>의 보도중에< ‘두뇌한국 21’ 사업내용 요약>문장중에 외국학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⁶⁴ <대구대, 외국 4 개대와 복수학위제>문장중에도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현지 취업을 하는 등 취업경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한다...’ 라는 사실을 밝혔다.⁶⁵ 이런 사회적으로 유학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례들이 조기유학의 열풍을 부추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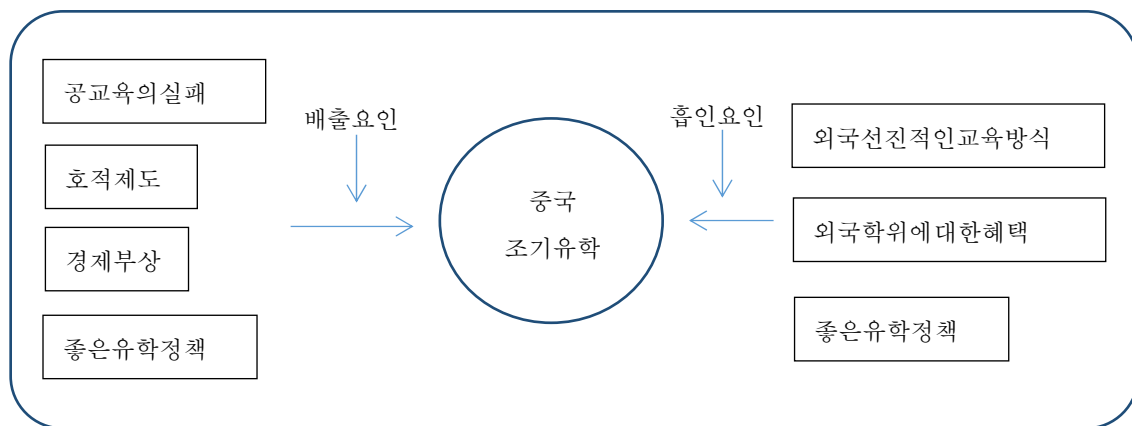
⁶³ 이민수. 2011. 「조기유학의 참여경험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⁶⁴ 강의영. 1999. 「‘두뇌한국 21’ 사업내용 요약」. 『연합뉴스』 5 월 24 일, 13:35.

⁶⁵ 문성규. 2001. 「대구대, 외국 4 개대와복수학위제」. 『연합뉴스』 11 월 7, 07:53.

4.2 중국조기유학생수의 증가원인

중국은 매년마다 조기유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조기유학생수의 증가원인을 잘 설명하기 위해 분석틀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깊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교육은 출세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통해 신분상승과 계층변화를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이 한국과 비슷한 이유가 한국과 중국이 같은 유교권에 있기 때문에 봉건 사회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출세론이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 현상의 증가가 사회적인 토대가 되었다.

중국의 한 성을 예를 들면 안휘성 2015 년 대학교입학시험 수험생 수가 52.7 만명이고 일류대학을 가려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해야 갈 수 직접

경쟁을 해 보지 않으면 모를 것이다.⁶⁶ 중국은 치열한 교육경쟁으로 전세계에서 유명하다. 학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식을 위해 어느 유치원에 가야 할지 어느 중학교에 가야 할지 어느 고등학교에 가야 할지 어느 대학에 가야할지 꼼꼼히 생각한다. 애써 사교육을 시키거나 호적을 바꾸는 등 많은 방법을 통해 자식의 좋은 미래를 그림을 그리고 있다.

중국의 1978 년 개방이후 유학생의 수가 많아졌다.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외국의 좋은 환경, 우월한 생활, 선진제도 그리고 보다 더 우대를 받은 현실이 점차 전 사회에 알려져 있다.⁶⁷ 이런 화제가 많아지면서 중국 학부모들은 “출국”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다. 즉, 심리적으로 유학하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더 좋은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조기유학을 추진하는 이유가 우선 경제부상이다. 한국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1997 년 IMF 위기)에 조기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경제가 좋아지면서 조기유학 현상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이런 사례가 많았다. 부모들이 자기 집을 팔고 은행에서 대출하고 큰 빚을 지더라도 ‘죽을 때 남겨 줄 재산과 아이가 시집갈 때 쓴 비용을 미리 주는 셈치고’ 유학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⁶⁸ 하지만 이런 현상이 중국에서는 많지 않았다. 중국에서 조기유학은 학부모들이 가정경제가 좋아지면서 이제 아이의 좋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교육적 행동이라고 생

⁶⁶ 新浪教育. <http://edu.sina.com.cn/gaokao/2015bm/>. (검색일: 2016. 4.1)

⁶⁷ 姚忆江. 2001. 「为了梦想的未来-中学生留学现象的观察与思考」. 『湖北教育』.

⁶⁸ 이강렬. 2008. 『가난한아빠미국명문대학부모되기』. 황소자리.

각한다.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전문적인 인재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적인 인재이동은 국제간 교육교류를 초래한다. 국제간 교육교류가 제일 많이 표현되는 방식은 유학이다.⁶⁹ 중국 학부모들은 이런 국제교육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자식을 좀 더 일러 외국으로 보내려고 한다. 처음에 외국으로 간 사람들은 중국의 상위층에있는 부자였다.⁷⁰ 하지만 중국이 경제발전을 하면서 “십일요” 동안 일인당평균 GDP가 1000 불을 넘었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개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배경밑에서 중국조기유학의 외부환경을 마련해 놓았다.⁷¹ 이제 조기유학은 “부자”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중산계층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최근 몇년의엔젤지수를 보면 계속 하락세가 보인다.

<표 12>는 중국엔젤지수를 보여준다.

⁶⁹ 顾远明. 1997. 『教育大辞典(上)』. pp.751.

⁷⁰ 曲恒昌. 2002. 「WTO 与我国的留学低龄化」. 『比较教育研究』第 12 期.

⁷¹ 杨冀辉. 2007. 「中国学生国外留学低龄化之社会学分析」. 『边疆经济与文化』第 7 期 总第 43 期. 北京师范大学教育学院.

<표 12>. 중국엥겔지수

년도	도시주민	농촌주민
2000	39.4%	49.1%
2001	38.2%	47.7%
2002	37.7%	46.2%
2003	37.1%	45.6%
2004	37.7%	47.2%
2005	36.7%	45.5%
2006	35.8%	43.0%
2007	36.3%	43.1%
2008	37.9%	43.7%
2009	36.5%	41.0%
2010	35.7%	41.1%
2011	36.3%	40.4%
2012	36.2%	39.3%
2013	35.0%	37.7%

자료: 중국통계국.

엥겔지수는 교육지출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엥겔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현상은 교육지출의 증가현상을 반영할 수 있다.⁷²Altbach는

⁷² 周红丽·冯增俊. 2016. 「恩格尔定律下中国家庭收入与教育支投入关系的实证研究」. 『当代教育科学』第三期.

교육인구이동의 원인 중의 하나가 경제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교육에 대한 열망이 생기면서 지출도 증가한다고 설명한다.⁷³ 주민에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식을 위해 더 많이 돈을 쓰게 되어 같은 돈을 썼지만 더 좋은 교육 더 경제적인 교육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원인이 중국 조기유학의 증가의 필수조건이다. 다른 충분조건도 있다. 이것은 중국조기유학을 추진하는 배출요인 중의 하나다. 경제부상이 조기유학을 위해 튼튼한 후원력이 되는 것이다.

중국은 조기유학의 상승이 중국의 호적제도를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6-3-3-4 한국과 같은 진학제도를 쓰고 있다. 어떤 농촌지역은 초등학교 5년일 수 있고 대학교 4 년에서 특수과의 경우 5 년의 경우도 있다. 중국은 초중학교는 ‘취근입학(就近入学)’ 제도를 쓰고 있다. 즉, 호구(户口)에 등록된 주소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간다. 고등학교는 “중고(中考)” 시험을 치고 입학할 수 있다. 대학교는 “고고(高考)” 시험(대학교입학시험)을 치고 입학할 수 있다. 고등학교 2 학년 되면 문과 이과를 나눈다. 중국은 호적(户籍)제도 때문에 각 성마다 시험내용이 다르다. 그리고 호구때문에 다른 성에 가서 시험을 칠 수 없다. 시험 난이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은 애써 좀 더 쉬운 성으로 가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쉽지 않다. 성 안에서는 성립고등학교가 있다. 중국인은 이를 “중점(重点)” 라고 부른다. 이러한 고등학교 가려면 먼저 시험에 합

⁷³ Altbach. P. 1998. “Comparative Higher Education: Knowledge, the University and Development.” Greenwich, Conn: Ablex Pub. Corp.

격해야 한다. 외국어 고등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실은 고등학교만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유치원도 “중점”이 있다. 학부모들은 좋은 초중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학교 근처에 집을 구매해서 호구를 그 곳으로 옮기는 상황이 내내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학구(학교구역)방열(学区房热)”이라고 한다.⁷⁴ 호적제도때문에 교육자원의 불공평성이 더 심해졌다. 이런 현상이 특히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볼 수 있다. 중국은 일류대학은 북경, 상하이 등 초대도시에 있다. 하지만 호적제도 때문에 외부성에 있는 학생이 쉽게 이런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를 들면 북경에 있는 학생이 다른 성에 있는 학생보다 더 쉽게 북경대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성에 있는 학생이 북경대에 들어가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중국은 요즘 국내대학 진학률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동부 각 성이나 연해의 있는 지역보다 서부지방의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낮다.⁷⁵ 이런 비슷한 현상때문에 중국의 교육열이 더 심해진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자체도 이런 시험제도를 피하려고 외국으로 유학가고 싶다고 한다.⁷⁶

중국조기유학 배출요인 중의 또 하나가 공교육의 실패다.

⁷⁴ 陈玲玲·唐学玉. 2009. 「‘学区房热’的原因及外溢效益研究」. 『中国集体经济』.

⁷⁵ 郭鑫·和欣·彭富强. 2011. 「中国学生留学低龄化问题的教育反思」. 『四川文理学院学报』第 21 卷 第 4 期.

⁷⁶ 新东方. 2015. 『中国留学白皮书』.

많은 중국인이 조기유학에 대한 이런 편견이 있다. 즉, 공부 못 하는 학생이 시험을 못 쳐서 대학교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조기유학을 선택한다. 물론 이런 학생이 있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기유학생 중 70%학생의 성적이 전반에 전 30% 순위에 차지하고 있다.⁷⁷ 시장조사 결과를 따르면 소유학생의 특징은 세가지가 있다.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국제화의식이 강하며 유학신념이 정확하다.⁷⁸ 그럼 이런 우수 학생들이 왜 국내교육을 포기하고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것인가?

중국 교육제도를 보면 한국과 같이 ‘입시위주교육’이다. 학생들이 시험기계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가 중학교를 다닐 때 매주 시험이 평균 5 개가 넘었다. 그리고 심지어 시험기간도 아닌 어떤 날 하루 종일 시험이 3 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시험점수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학교에 갈 건지 다 결정되는 것이다. 수업을 하는 방식이 학교마다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다. 즉,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제해전략(题海战术)’으로 연습 문제 양을 증가시켜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는 방법’이 한참 유행하였다. 이런식으로 공교육이 학생들에 마음속에 실증이(실증의) 나기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결심을 느끼는 것이다.

미국에서 조기유학을 다녀온 학생의 경험을 의하면 미국은 중국과 완전 다른 교육방식을 하고 있다. 미국대학교 시험은 일년 안에 7 번을 볼수 있

⁷⁷ 白舒元. 2015. 「低龄留学并非逃避高考:调查显示超过 2/3 中国赴美高中生成绩处于中上水平」. 『留学』.

⁷⁸ 张东阳. 2013. 「浅析‘留学低龄化’现象」. 『南方论刊』第九期. 中国青年政治学院.

고 매번 3 시간씩을 한다. 한편 중국은 일년의 한번 매번 이틀을 본다. 미국을 예를 들면 중학교에 들어가면 고정된 교실이 없고 단임 선생님도 없고 각 학년 자문선생님이나 도움선생님을 배치되어 있다.⁷⁹ 중국교재를 보면 어떤 내용은 많이 어렵다. 교육방식은 여전히 주입식교육위주다. 미국의 수업이념이 쾌락교육인 것도 역시 중국의 주입식교육과는 완전히 다르다. 평가방식도 중국은 단일평가이고 미국은 다원화평가이다. 중국에 있는 학교는 학생의 주동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중요시하지 않고 발휘하지 못해서 조기유학을 초래하다고 볼 수 있다.⁸⁰ 중국 교육의 질이 좋지 않은가? 국제경제협력과 발전협회 OECD 시작한 학생의 학업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학생능력국제평가” PISA, 상하이 전세계에서 연속 두번 일등을 한 것을 보면 중국의 초중학교 교육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⁸¹ 하지만 교육의 질이 단순히 시험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 잘하지만 이것을 위해 다른 국가의 학생보다 몇 배의 시간을 거쳤는지에 대한 계산은 할 수 없다. 외국에 있는 선진적인 교육방식이 중국조기유학의 흡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중국은 개방적인 유학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교육시장의 개방, 유학은 “국가급인재수출” 처럼 닿으지 못한 정도 아니었다. 보통 사람도 유

⁷⁹ 王莉. 2013. 「中国低龄留学跨文化适应调查研究-以新通教育机构中国留美学生为例」 安徽大学研究生院.

⁸⁰ 王卓. 2011. 「中国留学低龄化现象透视」. 『中国国情国力』.

⁸¹ 胡东方. 2014. 「‘留学低龄化’:教育的挑战与回应」. 『新教师』.

학을 갈 수 있다. 80년대에는 석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출한 사람 많았고) 9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학사학위를 위해 출국을, 90년대 중반이후엔 소유학생이 많아졌다.⁸²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 후 중국의 교육 또한 무역수출로 삼아 전부의 무역체계에 들어간다.⁸³ 즉, 교육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중국국민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유학할 수 있는 국가의 약속이다. 실은 조기유학은 정부에게 어느 정도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다. 조기유학의 경우 어느 정도 중국정부 교육지출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⁸⁴ 2001년을 예를 들자면 전국보통 초등학생의 평균적인 교육예산이 645 위안, 보통중학교가 931 위안, 보통고등학교 1471 위안이다. 만약 같은 해 전국 1만명의 초등학생, 1만명의 중학생, 1만명의 고등학생이 조기유학을 한다 하면 일년내에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 6,450,000 위안, 9,310,000 위안, 14,710,000 위안. 총 3.05 억위안이다. 조기유학생이 거의 대부분 대도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여서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북경시를 예를 들자면 2001년의 경우 초중고의 일인당 교육비용이 2,437 위안, 3,139 위안, 3,943 위안이다.⁸⁵ 따라서 국가가 조기유학을 막지 않고 많이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 지금도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중학교

⁸² 赵清海·李惠贤. 2015. 「对高中生出国留学潮的思考」. 『中学教育』.

⁸³ 曲恒昌. 2002. 「WTO 与我国的留学低龄化」. 『比较教育研究』第 12 期.

⁸⁴ 曲恒昌. 2002. 「WTO 与我国的留学低龄化」. 『比较教育研究』第 12 期.

⁸⁵ 国家教育经费统计. 2001. 【Z】教育部财务司.

이하에서 유학을 떠나는 것은 불법이다.⁸⁶ 그러나 조기유학생을 처벌하기도 어렵다. 규제하기에는 많기 때문이다. 중국 뿐만아니라 유학수입국도 여러가지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 소유학생의 부모가 같이해도 되고 모든 중학교 안에서 지도선생님을 한 명 배치해서 일상생활과 공부에 도움을 준다.⁸⁷ 영국도 중국 소유학생으로 하여금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⁸⁸ 이런 외부유인이 이루는 작용에 중국조기유학의 좋은 외부환경을 만들었다.⁸⁹ 유학정책이 중국 조기유학에게 배출요인이기도 하고 흡인요인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도 외국학위에 대한 혜택이 있다. 외국학위를 얻은 경우 중국에서 취직이 잘 된다고 인식한다.⁹⁰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을 중국어로 ‘해귀(海归)’라고한다.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는 것을 보면 중국 사람들은 유학과를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알 수 있다. 해귀는 여러가지 좋은점이 있다. 중국 교육부가 주관하는 유학

⁸⁶ 이강렬. 2007. 『꿈을 찾아 떠난 젊은이들』. 황소자리.

⁸⁷ 赵晓霞. 2016. 「2016 年留学三大趋势」. 『团结报』 1 月 16 日第 002 版. 华人华侨.

⁸⁸ 李立勋. 2014. 「各国留学新政加速留学低龄化」. 『北京商报』, 3 月 24 日第 D01 版. 教育周刊.

⁸⁹ 肖思汉. 2010. 「中国小留学生父母教育观念研究」. 华东师范大学.

⁹⁰ Mahuiling. 2015. 「盘点海归回国创业优势, 政策福利拿到手发软」. 『中商情报网』 10 月 12 日.

센터사이트에서 보면 해귀가 다른 사람보다 쉽게 원하는대의 호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정책도있고 또한 창업이나 자식에게도 지원이 있다는 정책이 있다.⁹¹ 따라서 중국 조기유학현상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⁹¹ 中国留学网. <http://www.askci.com/news/2015/10/12/155115xvvt.shtml>. (검색일: 2016 년 4 월 1 일)

4.3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생수의 증가원인에 대한 비교

한국과 중국의 같은 조기유학생수의 증가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데에 이유가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이다. 위에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표와 같다.

요인	한국	중국
호적제도	×	o
공교육의 실패	o	o
영어배우기	o	×
사교육/경제부담	o	×
경제부상	×	o
외국학위에 대한 혜택	o	o
유학정책	×	o

한국의 조기유학을 초래하는 원인중에 영어배우기 그리고 사교육요인이 강하다.⁹² 하지만 이 두가지 요인은 중국의 조기유학을 적용하지 못한다. 중국의 호적제도와 경제부상이 조기유학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

⁹² 김홍원. 2005. 「조기유학에관한국민의식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는데 이 두가지 요인 또한 한국의 조기유학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⁹³ 유학정책도 중국에서는 기 유학을 추진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⁹⁴ 이와 반면 공교육의 실패와 외국학위에 대한 혜택이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생 수의 증가원인에 같이 영향을 주었다.⁹⁵

⁹³ 中国青少年研究中心课题组.2013.「我国低龄留学生发展状况研究报告」.『中国青年研究』.

⁹⁴ 曲恒昌.2002.「WTO 与我国的留学低龄化」.『比较教育研究』第 12 期.

⁹⁵ 김광웅.2006.「조기유학: 얻는것과 잃는 것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과제」.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심포지엄 1-10.

5. 한국의 조기유학생수의 하락원인

‘선진국에서는 조기유학을 보낸다는 얘기를 별로 들은적이 없다.’⁹⁶ 한국도 선진국인데 왜 조기유학을 많이 보내는가 이제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조기유학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위층을 흉내내려는 자부심 때문에 맹목적으로 보내다가 실패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김지훈이 동남아시아에 조기유학 한 학생들의 귀국경험 대상으로 살펴보았는데 중고등학교 조기유학을 갈 때 여러문제로 인해 귀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다. 김희경이 지은 ‘죽도 밥도 안된 조기유학’이라는 책에서는 조기유학 실패자중에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미국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교육제도와 못지않게 싫어하는 미국교육제도, 그리고 여러가지 학교생활문제들로 인해 한국에 다시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가족이야기다.⁹⁷ 한국 사회에서 유학실패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⁹⁸ 외국에서 환경을 적응하지 못해 돌아온 경우뿐만 아니라 돌아온 후 본국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자아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세계관의 변화 및 문화적인 차이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⁹⁹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외국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 적응되

⁹⁶ 이경자. 2006. 「인간발달학적 관점이라면 조기유학은 더욱 문제가 있다」.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pp. 115-119.

⁹⁷ 김희경. 2004. 『죽도밥도안된조기유학』. 새로운사람들.

⁹⁸ 김지훈. 2013. 「동남아시아에 조기유학한 학생들의 귀국경험」. 『언어와문화』 9권 2호.

어 다시 한국에 와서 친구들을 사귀었을 때 불편하다고 느껴지며 사회에 진출할 때도 불편한 점이 많다. 이렇게 실패자가 많을 수록 조기유학을 가려는 학부모들이 결정이 더 어려워졌다.

공교육이 계속 이런 상태인데 왜 조기유학생 수치가 떨어졌을까? 학부모들은 다시 공교육의 교육방식을 받아들였을까? 그렇지 않다. 학부모들이 다른 선택이 있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이 생기는 것이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 특정한 지역에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이고 국제학교는 특별법에 따라 규정한 특정지역이 속한 지자체와 위탁운영 법인 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다.¹⁰⁰ 외국교육기관의 교육대상은 유·초·중·고교 및 대학이고 국제학교의 교육대상은 유·초·중·고교이다.¹⁰¹ 외국교육기관은 송도 채드윅 국제학교와 대구 국제학교가 있고 국제학교는 KIS Jeju, NLCS Jeju 그리고 Branksome Hall Asia 가 있다. 채드윅국제학교가 2010 년 9 월 1 일에 개교하였고 대구국제학교는 2009 년 5 월 19 일에 설립운영 협약체결, 2010 년 8 월 23

⁹⁹ 김은진·김현우. 2010. 「사교육으로서조기유학의문제인식에대한소고」. 『高鳳論集』 47 권. 경희대학교대학원.

¹⁰⁰ 이덕난·유의정·김만겸. 2014.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의 법적 쟁점분석」. 교육법학연구.

¹⁰¹ 유의정·이덕난. 2012. 「외국인학교·외국인교육기관·국제학교의 주요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일에 개교했다. KIS Jeju(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는 2011년 9월 1일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으로 개교했고, 2013년 8월 19일 고등학교 과정을 시행했다. NLCS Jeju(노스런던컬리에잇스쿨 제주)는 2011년 9월 1일에 개교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편성되어있다. Branksome Hall Asia(브랜섬홀아시아)는 2012년 10월 29일에 개교했고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가 남녀공학, 4학년부터 12학년까지가 여학교로 운영된다. 한국부모들의 인식중에 국제학교는 표준 미국식 교육방식으로 모든 과목이 영어로 하고 인재양성 및 영어실력 형성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¹⁰² <‘제주 국제학교’ 조기유학 대안으로 부상>라는 뉴스가 뜬다는 것으로 보면 한국부모들은 국제학교에게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이다.¹⁰³ 그리고 ‘먼 외국에 아이를 보내놓고 노심초사하거나 기러기 아빠를 양산하느니 국내에 우수한 국제학교를 만들어 이곳에 유학시키는 게 백배 낫다는 것’ 라는 뉴스도 있다.¹⁰⁴ 조사에 따르면 국제학교가 없으면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냈을 것이라는 응답자수가 45%에 달했다는 것으로 보면 국제학교가 조기유학 수요와 외화 절감에 상당부분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⁰⁵

¹⁰² 윤초희·한수연. 2015. 「국제학교 학생의 자아 존중감, 학교적응 및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 권 2 호.

¹⁰³ 최승근. 2016. 「‘제주국제학교’조기유학 대안으로 부상」. 『뉴스토마토』 5월 26일 11:21:40.

¹⁰⁴ 김덕준. 2016. 「해외로 조기유학? 제주국제학교가 백배 더 좋아요」. 『부산일보』 3월 30일 18:14:46.

¹⁰⁵ 동아경제. 2016. 「제주 국제학교에 해외대학 방문러시 ‘명문대 진학률 높아」. 『동아일보』 3월 23일 16:36.

두번째 원인은 가족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조기유학이 가족에게 주어진 영향은 절대 소홀히 할 없을 것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06년 12월 8일 밤 11시 5분, 조기유학의 폐해를 다룬 ‘가족 해체를 부르는 조기유학 올인’ 편을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유학으로 빚어진 여러가지 부작용을 살펴보았다.¹⁰⁶

한국 학부모들은 자기의 특별한 양육관에서 출발하여 만약 자식들이 일류대학을 못 간다면 체면심리와 부모의 자존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교육에게 집착하고 있다.¹⁰⁷ 한국 높은 교육열도 여기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¹⁰⁸ Erikson는 부모-자녀 역할에 대해 ‘생성감’ 개념을 지적하고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 본능적으로 자식으로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¹⁰⁹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가 되더라도 자식의 좋은 미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해도 보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왜 조기유학의 수치가 떨어졌을까?

조기유학은 한국의 가족을 두가지 유형으로 만들었다. 아빠가 한국에 남아 있고 아내와 자식이 외국에서 있는 가족과 자식이 나홀로 외국에 있

¹⁰⁶ TV 리포트. <http://tvreport.co.kr/>. (검색일: 2016년 4월 1일)

¹⁰⁷ 이원영. 1998. 「한국인의 심리에 비추어 본 양육태도」.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3』. 중앙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최상진. 2000. 「체면의 심리적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권 1호. pp.185-202.

¹⁰⁸ 최양숙. 2005. 『조기유학, 가족 그리고 기러기아빠』. 한국학술정보.

¹⁰⁹ Erikson, Erik H. 1997. 『아동기 와사회』. 윤진·김인경 공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는 가족이다. 아빠가 혼자 한국에 남아 있는 현상은 한국에서 ‘기러기아빠’라는 특별한 명칭으로 불리며 이 두가지 유형이 다 분거가족의 일종이다.

‘위기의 가정, 마을 문화로 되살리자’ 제목으로 된 뉴스에서 ‘자식의 조기 유학으로 홀로 남은 기러기 아빠, 아시아 최고의 이혼율 등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 있다.¹¹⁰ 조기유학은 가족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는 조기유학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¹¹¹ 원래 가족의 개념이 구성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사는 생활공동체를 가르키는데 시간이 흐를 수록 인구이동이 심해져서 구성원들끼리 같이 안 살아도 어떤 연대가 있으면 가족이라고도 한다.¹¹² 조기유학으로 인해 나타난 기러기 아빠의 가족(분거가족)은 가족의 또 다른 형태이다. 기러기 아빠들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느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¹¹³ 조기유학은 가족 전체의 선택이지만 남아있는 기러기 아빠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즉, 가족관 및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포함된다.¹¹⁴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유교 사상에 물들어

¹¹⁰ 오피니언. 2016. 「위기의 가정, 마을문화로 되살리자」. 『세계일보』 5월 15일 18:01:57.

¹¹¹ 이춘희·장미정. 2009. 「조기유학아동의 유학생생활 적응에 관한 인식분석: 캐나다 조기유학을 중심으로」.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4 권 6 호. pp.489-509.

¹¹² 두산동아편집부. 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두산동아.

¹¹³ 이숙현. 2014. 「‘기러기아빠’의 스트레스와 대처전략」. 『젠더연구』 19 호.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¹¹⁴ 김성숙. 2007. 「기러기아빠의 생활변화와 적응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 권 1 호. pp.141-158.

서 아버지의 역할이 변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가 되더라도 여전히 아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위기감이 다가온다. 세계화된 한국 사회에서 아빠가 미래에 대한 투자가 정말로 효율적인가? 한국 아빠들은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다는 것이다.¹¹⁵ 그리고 이런 불안은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더 심화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식이 나홀로 조기유학을 간 경우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심리적인 외로움이 나타나고 부모님과 의사소통도 줄어들고 있다.¹¹⁶ 자녀들이 부모님 옆에 없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가 가까워지기 어렵고 부부간의 갈등이나 가족해체 등의 잠재적인 위험성도 있다.¹¹⁷ 이런 분거가족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

또 하나의 원인은 조기유학의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한국은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세계일류국가가 되었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오랫동안 발전하여 성장한 나라와 비교해 보면 인내심과 좌절감을 극복한 강력한 심리가 부족하다. 즉, 위기를 극복하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투자’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 만큼 ‘수입’이

¹¹⁵ 정고운. 2011. 「세계화시대의 한국가족주의: ‘기러기아빠’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¹¹⁶ 유준호·홍은주. 2012. 「조기유학에의한 분거가족의 부모역할 및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4 권 1 호. pp.39-60.

¹¹⁷ 서영아·박정운·전세경. 2008. 「학령기 아동의 조기유학경험유무와 부모-자녀관계 지각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1 권 3 호. pp.241-256.

되지 않으면 위기를 느낀다.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더 나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¹¹⁸ 즉, 조기유학을 한 학생은 외국에서도 직업을 찾을 수 있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수월하게 직장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조기유학을 했다는 것만으로 좋은 직장을 찾기가 힘들다.¹¹⁹ ‘[아이비리그, 험난한 리그]<5>유학 패턴이 바뀐다’라는 뉴스에서는 국내에서 취업할 때 조기유학생이 더 이상 우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 사실을 밝혔다.¹²⁰ 실은 대부분 학교 졸업생이 취직할 때 가장 관심 있는 것중 하나가 기업문화라는 것이다. 기업문화도 사회문화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Berry가 문화이중성에 대해 문화적응의 유형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나누었다.¹²¹ 자기나라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의 문화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통합적 이중문화자가 노력을 통해 (무엇을) 해야한다. 조기유학을 마친 사람들의 취직상황을 분석했을 때 그들은 본인이 생각했었던 직장생활과 현재 직장생활 사

¹¹⁸ 주도연. 2011. 「조기유학 귀국학생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조발그니. 2012. 「해외유학생에대한국내연구동향내용분석」. 『교육연구』 35권.pp.73-98.

¹¹⁹ 김현주. 2015. 「미국대학을 졸업한 조기유학 경험자의 진로탐색 경험 및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교육연구』 25권 3호.pp.147-178.

¹²⁰ 신수정. 2007. 「[아이비리그, 험난한리그]<5>유학패턴이바뀐다」. 『동아뉴스』 1월 25일 03:00.

¹²¹ Berry. J.W. 2005.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B. Organista. & G. Marin(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and applied research. pp. 17-37.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이에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아직도 통합정도가 아니었다. 한편 조기 유학을 했기 때문에 자부심이 생겨서 더 좋은 직장을 찾으려는 불안정한 취직심리의 문제점이다.¹²² 따라서 조기유학을 하고 나서 기대한 만큼 좋은 직장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돈으로 일어난 자 돈으로 망하나니’라는 뉴스에서 ‘조기 유학이 본격화된 지 10 년이 넘었지만 유학을 떠난 나라에서 취업에 성공한 경우가 드물...’이라는 내용을 보면 조기 유학이 꼭 취업의 보장이라고 할 수 없다.¹²³ 게다가 한국경제의 불황으로 경제적인 요소로 어쩔수 없이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춘희와 장미정이 캐나다에 조기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중에 조기유학가족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비교적 높은 것을 발견했다.¹²⁴

위의 원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민정책이나 출입국조건이 달라져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해 생활하고 일을 한다. 통계청의 수치를 살펴보면 2014 년안에 외국인 입구자 수가 40 만명을 넘었다. 외국인 등록인구가 1,091,531 명이고 순 이동자수가 136,540 이다. 2015년 7월 8월 9월의 통

¹²² 송민경·윤철경·이현주·김고은. 2011. 「조기유학 종료자의 대학졸업 이후 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연구」. 『청소년학연구』 18 권 12 호.pp 375-402.

¹²³ 김운희. 2012. 「돈으로일어난자돈으로망하나니」. 『프레시안』 8 월 29 일 07:48.

¹²⁴ 이춘희·장미정. 2009. 「조기유학아동의 유학생활적응에 관한 인식분석: 캐나다 조기유학을 중심으로」.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4 권 6 호.pp.489-509.

계를 보면 불과 3 개월동안 미국에서 총 13,903 명의 입국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¹²⁵ 즉, 옛날에는 공교육에서만 영어를 배웠고 이를 더 배울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타국으로 유학했었는데, 이제는 본국에서도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외국 친구를 쉽게 사귄 수 있고 미국에서 온 선생님도 쉽게 만날 수 있기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한다.

또한 Lee & Koro-Ljungberg 의 연구에서 한국 조기유학생은 미국학교에서 다른 소속민족에게 비언어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별명을 부를 뿐만아니라 식당이나 운동장에서도 놀림을 당해본 적이 있다.¹²⁶ 박영우와 박주형의 연구에서 한국 조기유학생들의 학교폭력경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동양의 학생들은 언어장벽과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미국같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기 쉽다고 한다.¹²⁷ 뉴스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보도가 있다.¹²⁸ 한국 학부모들은 주변의 이야기나 뉴스를 통해 부정적 환경을 간접적으로

¹²⁵ 국가통계청.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검색일: 2016 년 4 월 1 일)

¹²⁶ Lee.I. and Koro-Ljungberg.M. 2007. "A phenomelogical study of Korean students' acculturation in middle schools in the USA".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6(1): 95-117.

¹²⁷ 박영우·박주형. 2013. 「한국 조기유학생들의 학교 폭력경험-미국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3 권 3 호. 한국비교교육학회.

¹²⁸ 이성희. 2009. 「낮선 땅 외로움, 인성에 상처 날라」. 『주간뉴스』 7 월 29 일 10:45.

접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식들이 외국에서 폭력을 당할까봐 조기유학을 안 보내기도 한다. 또한 학생들도 스스로 이러한 이국적인 환경 안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조기유학에 대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이제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다. 조기유학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자신 의사, 유학 의도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¹²⁹ 부모님의 의지대로 철없는 아이를 외국으로 보내 어려움과 외로움을 견뎌 성장해야 하는데 과연 부모로서 아이의 좋은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일까?

¹²⁹ 엄지숙. 2008. 「유아들의 경험으로부터 본 조기유학의 빛과 그늘」. 『열린유아 교육연구』 13 권 6 호.pp.241-259.

6. 결론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 사회적 방면에서 많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유교사상이 지배하면서 한국인과 중국인은 교육에 대한 열망과 집착은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와 함께 이 세상 속으로 왔다. 부모들의 마음 속에 있는 문화적인 생각은 자녀양육 및 교육에 많은 영향을 준다.¹³⁰ 그러므로 학부모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물려주어 큰 기대를 바라는 것이다.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 등 좋은 미래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교육의 열풍이 불어 ‘조기유학’이 탄생하는 충분한 외부환경이 마련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조기유학에 대한 개념이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한국의 조기유학이 학력으로 구분되어 있고 중국의 조기유학이 명치부터 ‘저령유학’이라고 한국과 다르게 주로 나이로 정한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 현황을 보면 겪었던 과정도 다르다. 한국은 1997년부터 조기유학의 수가 증가하여 2006년에 정점에 도달하였고 200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불과 20년이 지나서 한국의 조기유학의 성수기가 사라졌다. 대신 중국의 부상으로 조기유학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20세기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조기유학과정에서 동일한 조기유학생수의 증가 시기가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해 유사한 점도 찾을 수 있고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

¹³⁰ 최양숙. 2005. 『조기유학, 가족 그리고 기러기아빠』. 한국학술정보.

다. 유사한 점을 보면, 첫째, 한국인과 중국인은 본국의 현행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고 치열한 교육경쟁이 학생에게 큰 부담을 주고있다. 이런 부담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위기감을 주어 외국으로 보내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국가간 교류가 날마다 긴밀하게 발전하면서 글로벌인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기유학을 추진하였다. 즉, 외국학위에 대한 혜택이 한국과 중국사회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차이점도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은 사교육부담으로 외국으로 탈출하고 싶어조기유학을 보내려는 것이 학부모들의 심리인데 중국은 경제부상의 이유때문에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호적제도가 조기유학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한국은 그런 점이 없었다. 셋째, 한국은 영어실력을 양성하기 위해 조기유학을 많이 보내게 되었는데 중국은 이것 때문에 조기유학을 보내는 자료를 흔히볼 수 있다. 이렇게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이 공동작용하에 조기유학의 숫자가 뚜렷하게 상승하였다.

한국은 2006 년부터 조기유학생수가 하락하고 있었다. 이유는주로 조기유학 대신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이다. 국제학교가 교육환경이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과 비슷하고 또한 먼거리 유학보다 편하기도 편하기에 조기유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다. 두번째원인은가족관계이다. 조기유학이 가족의 해체에 큰 영향을주기 때문에 가족의 유지를 위해 이를 포기하는 생각을 하는학부모들이 많아졌다. 셋번째 원인은 조기유학의 효과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즉, 외국학위에 대한 혜택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했던 경험이 취업에 대한 보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넷

번째 원인은 굳이 조기유학을 선택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조기유학생수가 많아지다가 떨어지는 현황을 보면 필자는 중국의 조기유학생수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중국도 국제학교가 많이 설립될 것이고 기러기아빠' 같은 사회적인 가족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시간이 지날 수록 조기유학생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게다가 중국교육부는 중국의 조기유학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중의 하나인호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 이 이유때문에 조기유학을 간 학생수가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문자료와 논문자료분석을 통해 한중조기유학의 현황 및 원인을 살펴보았다. 자료를 많이 인용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중국에 조기유학생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기가 힘들어 사례를 들어 겉으로 증가세를 설명하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기유학에 대한 원인중에 사회적인 여론이나 인터넷등의 정보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준 심리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한국과 중국이 인터넷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앞으로도 연구를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싶다.

참고문헌

영문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https://internationaleducation.gov.au/research/research-snapshots/pages/default.aspx>.
- Altbach. P. 1998. "Comparative Higher Education: Knowledge, the University and Development." Greenwich, Conn: Ablex Pub. Corp.
- Berry. J.W. 2005.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B. Organista. & G. Marin(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pp. 17-37.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hie Maekawa. 2009. "A comparative Study on Education Aspir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ternational Area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 Myung-Duk. 2002. "The Causes of Increasing Young Korean Students Who Go Abroad to Study." 현상과인식 26(4): 135-152.
- Erikson, Erik H. 1997. 『아동기 와사회』. 윤진·김인경 공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Farrugia, C.A. 2014. "Charting New Pathways to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Secondary Students in United Stat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 Lee.I. and Koro-Ljungberg.M. 2007. "A phenomelogical study of Korean students' acculturation in middle schools in the USA".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6(1): 95-117.

OECD. 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 p.306.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yrowy, L., and Inkeles, A. 1994. "University-level student exchange: The US role in global perspective, In Foreign Student Flows: Their Significance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N.Y.

중문자료

- 白舒元. 2015. 「低龄留学并非逃避高考:调查显示超过 2/3 中国赴美高中生成绩处于中上水平」. 『留学』.
- 陈玲玲·唐学玉. 2009. 「‘学区房热’的原因及外溢效益研究」. 『中国集体经济』.
- 陈西金燕·刘诗萌·剧若翔. 2011. 「中国大陆低龄留学的现状分析与自费留学评估体系的建立」. 『世界教育信息』.
- 丁群·游永彬. 2007. 「浅析留学低龄化」. 『南昌航空工业学院学报』第 9 卷第 1 期. 江西省教育厅国际合作中心.
- 丁艳丽. 2013. 「留学低龄化何以来势汹汹」. 『中国人才』.
- 顾远明. 1997. 『教育大辞典（上）』. pp.751.
- 国家教育经费统计. 2001. 【Z】教育部财务司.
- 郭鑫·和欣·彭富强. 2011. 「中国学生留学低龄化问题的教育反思」. 『四川文理学院学报』第 21 卷 第 4 期.
- 胡东方. 2014. 「‘留学低龄化’:教育的挑战与回应」. 『新教师』.
- 李立勋. 2014. 「各国留学新政加速留学低龄化」. 『北京商报』, 3 月 24 日第 D01 版. 教育周刊.
- 蒋敏华. 2015. 「留学低龄化, 看懂了吗」. 『절강일보(浙江日报)』. 7 월 21 일, 8:59.

- Mahuiling. 2015. 「盘点海归回国创业优势，政策福利拿到手发软」. 『中商情报网』 10 月 12 日.
- 马海丽. 2016. 「留学潮背景下 未来中国留学领域发展趋势如何」. 『人民日报海外版』 . 1 월 7 일 11:17.
- 曲恒昌. 2002. 「WTO 与我国的留学低龄化」. 『比较教育研究』 第 12 期.
- 王芳. 2016. 「贵州出国留学生现低龄化 98 所国外院校来筑招生」.
『귀주만보(贵阳晚报)』 . 3 월 16 일 9:23.
- 王莉. 2013. 「中国低龄留学跨文化适应调查研究-以新通教育机构中国留美学生为例」 安徽大学研究生院.
- 王卓. 2011. 「中国留学低龄化现象透视」. 『中国国情国力』 .
- 肖思汉. 2010. 「中国小留学生父母教育观念研究」. 华东师范大学.
- 新浪教育. <http://edu.sina.com.cn/gaokao/2015bm/>. (검색일: 2016. 4.1)
- 新东方. 2015. 『中国留学白皮书』 .
- 杨冀辉. 2007. 「中国学生国外留学低龄化之社会学分析」. 『边疆经济与文化』 第 7 期 总第 43 期. 北京师范大学教育学院.
- 姚忆江. 2001. 「为了梦想的未来-中学生留学现象的观察与思考」. 『湖北教育』.
- 张东阳. 2013. 「浅析‘留学低龄化’现象」. 『南方论刊』 第九期. 中国青年政治学院.
- 张航. 2015. 「中国留学生越来越小,家长怎样在当地给孩子请保姆」.
『북경만보(北京晚报)』 . 10 월 26 일, 9:40.
- 赵清海·李惠贤. 2015. 「对高中生出国留学潮的思考」. 『中学教育』 .

- 赵晓霞. 2016. 「2016 年留学三大趋势」. 『团结报』 1 月 16 日第 002 版. 华人华侨.
- 周红丽·冯增俊. 2016. 「恩格尔定律下中国家庭收入与教育支投入关系的实证研究」. 『当代教育科学』 第三期.
- 中国留学网. <http://www.askci.com/news/2015/10/12/155115xvvt.shtml>. (검색일: 2016 년 4 월 1 일)
- 中国教育部. 2012. 「贡献大任务重挑战多」. 『中国教育报』 . 7 월 6 일.
- 中国教育部. 2013. 「低龄留学倾向须引起高度重视」. 『中国教育报』 . 7 월 27 일.
- 中国教育部. 2016. 「两会聚焦:教育改革也要供给侧发力-访全国政协常委、民进中央副主席朱永新」. 『中国教育报』 .
- 中国青少年研究中心课题组. 2013. 「我国低龄留学生发展状况研究报告」. 『中国青年研究』 .
- 中新社. 2012. 「中国小留学生已成加拿大教育部门重要财源」. 『中新网』 . 9 월 5 일, 04:58.
- 中国与全球化智库. 2013. 『中国留学发展报告』 . 社会科学出版社.
- 中国与全球化智库. 2015. 『中国留学发展报告』 . 社会科学出版社.
- 周满生. 2013. 「教育国际化背景下我国低龄留学原因及利弊探析,教育部国家教育发展研究中心」. 『比较教育研究』 No.10 General No.285.

한문자료

- 김덕준. 2016. 「해외로 조기유학? 제주국제학교가 백배 더 좋아요」. 『부산일보』 3월30일 18:14:46.
- 강봉진. 2015. 「조기유학 붐 한풀 꺾였다 "대입·취업에 큰도움 안돼"」. 『매일경제』. 11월17일 17:26:17.
- 강의영. 1999. 「'두뇌한국21' 사업내용 요약」. 『연합뉴스』 5월24일, 13:35.
- 강치호. 2011. 「영어조기유학에 대한 학부모의 전반적인 인식 연구: 자녀를 영어조기유학보낸 학부모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 대학원.
- 고재용. 2006. 『미국유학200% 해킹하기』. 한숨미디어.
- 국가통계청.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검색일: 2016년4월1일)
- 김광웅. 2006. 「조기유학: 얻는 것과 잃는 것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과제」.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심포지엄1-10.
- 김성숙. 2007. 「기러기아빠의 생활변화와 적응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권 1호. pp.141-158.
- 김소희. 2015. 「조기 유학 다녀와도 '주류' 못 된다 1/3로 급감한 유학생」. 『데일리한국』. 12월2일 00:13:55.
- 김운희. 2012. 「돈으로 일어난 자돈으로 망하나니」. 『프레시안』. 8월29일 07:48.

- 김은진·김현우. 2010. 「사교육으로서조기유학의문제인식에대한소고」. 『高鳳論集』 47 권. 경희대학교대학원.
- 김지훈. 2013. 「동남아시아에 조기유학한 학생들의 귀국경험」. 『언어와문화』 9권2호.
- 김희경. 2004. 『죽도밥도안된조기유학』. 새로운사람들.
- 김현주. 2015. 「미국대학을 졸업한 조기유학 경험자의 진로탐색 경험 및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교육연구』 25권 3호.pp.147-178.
- 김홍원. 2005.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남인숙. 2011. 「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격차」. 『현상과 인식』 특권 2011.9. pp.15-38.
- 동아경제. 2016. 「제주 국제학교에 해외대학 방문러시'명문대 진학률 높아」. 『동아일보』 3월23일 16:36.
- 두산동아편집부. 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두산동아.
- 문성규. 2001. 「대구대, 외국4개대와복수학위제」. 『연합뉴스』 11월7, 07:53.
- 민병찬. 2016.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5월3 일, 08:55:01.
- 박영우·박주형. 2013. 「한국 조기유학생들의 학교 폭력경험-미국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3권3호. 한국비교교육학회.
- 서영아·박정운·전세경. 2008. 「학령기 아동의 조기유학경험유무와 부모- 자녀

- 관계 지각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1권3호. pp.241- 256.
- 성정현·홍석준. 2013. 『그들은 왜 기러기가족을 선택했는가』. 한울아카데미.
- 송민경·윤철경·이현주·김고은. 2011. 「조기유학 종료자의 대학졸업 이후 생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연구」. 『청소년학연구』 18권12호. pp 375- 402.
- 신광영. 2004.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 신수정. 2007. 「[아이비리그, 험난한리그]<5>유학패턴이바뀐다」. 『동아뉴스』. 1월25일 03:00.
- 안병철. 1996. 「조기유학의 현황과 과제: 북가주(Northern California)조기유학 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후기사회학대회』 pp. 67-82.
- 양정호. 200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체계적 선형모형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권2호. pp.121-145.
- 양정호. 2006. 「교육양극화무엇이문제인가?」. 『교육개발』 33권1호.
- 염지숙. 2008. 「유아들의 경험으로부터 본 조기유학의 빛과 그늘」. 『열린 유아교육연구』 13권6호. pp.241-259.
- 오욱환. 2000. 『한국사회의 교육열: 기원과 심화』. 서울: 서울과학사.
- 오욱환. 2008. 『조기유학, 유토피아를 향한 출구: 조기유학의 복합적기능과 역기능』. 교육과학사.

오피니언. 2016. 「위기의 가정, 마을문화로 되살리자」. 『세계일보』 5월15일18:01:57.

유준호·홍은주. 2012. 「조기유학에 의한 분거가족의 부모역할 및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4권1호. pp.39-60.

유의정·이덕난. 2012. 「외국인학교·외국인교육기관·국제학교의 주요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윤정일·정수현. 2003. 「한국공교육의진단」. 『아산재단연구총서』 제141집. 집문당.

윤초희·한수연. 2015. 「국제학교 학생의 자아 존중감, 학교적응 및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권2호.

이강렬. 2007. 『꿈을 찾아 떠난 젊은이들』. 황소자리.

이강렬. 2008. 『가난한아빠 미국명문대학 부모되기』. 황소자리.

이광현. 2006. 「OECD PISA 학업성취도에서의 양극화심화」. 교육정책포럼.

이경자. 2006. 「인간발달학적 관점이라면 조기유학은 더욱 문제가 있다」.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pp. 115-119.

이덕난·유의정·김만겸. 2014.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의 법적 쟁점분석」. 교육법학연구.

이민수. 2011. 「조기유학의 참여경험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원영. 1998. 「한국인의 심리에 비추어 본 양육태도」. 『한국교육 문제연구소논문집 13』. 중앙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 이성림. 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40권9호. pp.143-159.
- 이성희. 2009. 「낮선 땅 외로움, 인성에 상처 날라」. 『주간뉴스』 7월29일 10:45.
- 이숙현. 2014. 「‘기러기아빠’의 스트레스와 대처전략」. 『젠더연구』19호.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이순형·권미경. 2009. 「한국의조기유학」. 『한국아동학회아동학회지』 30권6호. pp297-308.
- 이종각·김기수. 2003. 「‘교육열’개념의 비교와 재정의」. 『교육학연구』. 41권3호. pp.191-214.
- 이재윤. 2015. 「‘한물간’조기유학...유학생 8년만에 3분의1로급감」. 『연합뉴스』. 11월17일 06:15.
- 이춘희·장미정. 2009. 「조기유학아동의 유학생생활 적응에 관한 인식분석: 캐나다 조기유학을 중심으로」.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4권 6호. pp.489-509.
- 전옥경. 2012. 「영어능숙도, 한국에서의 학업성적 및 문화이해도가 조기유

- 학생의 자아형성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대학원.
- 정고운. 2011. 「세계화시대의 한국가족주의: '기러기아빠'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 정혜진. 2015. 「조기유학생 8년만에 1/3로 '뚝」. 『서울경제』. 11월17일 17:21:33.
- 조발그니. 2012. 「해외유학생에대한국내연구동향내용분석」. 『교육연구』 35권.pp.73-98.
- 주도연. 2011. 「조기유학 귀국학생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 진경애·한종임. 2010.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공교육이 학생들의 정책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회지』 37권2호.pp. 31-35.
- 최상근 외. 2003. 「사교육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CR 2003-19.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진. 2000. 「체면의 심리적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권1호. pp.185-202.
- 최승근. 2016. 「'제주국제학교'조기유학 대안으로 부상」. 『뉴스토마토』 5월26일 11:21:40.
- 최양숙. 2005. 『조기유학, 가족 그리고 기러기아빠』. 한국학술정보.
- 최형재. 2007. 「사교육의 대학 진학에 대한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TV리포트. <http://tvreport.co.kr/>. (검색일: 2016년4월1일)

피정만. 2011. 『한국교육사 이해』. 하우.

한준상·Sharan Merriam. 2004. 『조기유학로드맵』. 청아출판사.

Abstract

A comparative research on early study abroad between the South Korea and China

Sun Zepu

Korea Studies Maj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early study abroad phenomenon between the South Korea and China. It also shows the changing of the number of students who studied abroad early and factors that may have caused these changes. The number of the students who early studied abroad in the South Korea had been increasing since 1997, however in 2006, it came to a turning point. Until now, it continues to decrease. The research demonstrates that there is a tight connection between the early study abroad phenomenon and inherent educational system. On top of that, the excessive costs of private education have a crucial influence on this phenomenon. Besides those internal causes, there are also other reason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students studying abroad. South Korean society is convinced with the importance of English and strongly believe that someone with the foreign degree could get a good job. However, it in fact became very difficult for students who held

good foreign degree from the USA or the Europe to find a job since 2006. Moreover, in year 2006, international schools were slowly emerging in South Korea, it then provides new choices for parents. Thus, causing the number of early study abroad students to decrease.

On the contrary, the number of Chinese early study abroad students are still increasing. The growth of economic and the educational system accelerate the phenomenon of early study abroad. Also, opening study-abroad policy and advanced education methods in the foreign country have a big effect on this phenomenon. This research utilizes the push and pull theory to explain the reasons of early study abroad and made some new frameworks to account this more carefully.

Key words: early study abroad, education enthusiasm, educational system

Student ID.: 2014-24258